

시편 71편 묵상 -

모태에서 무덤까지

시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 개역 | 사역 |
|--|---|
| <p>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p> <p>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p> <p>3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p> <p>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p> <p>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p> <p>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불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p> <p>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p> <p>8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p> <p>9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p> <p>10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꺾하여</p> <p>11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p> <p>12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p> <p>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謀害)하려 하는 자에게는 옥과 수옥이 덮이게 하소서</p> <p>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p> <p>15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p> <p>16 내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p> <p>17 하나님이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p> <p>18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p> <p>19 하나님이며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니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 이까</p> <p>20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p> | <p>1 여호와 주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p> <p>2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구해 주시며,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p> <p>3 내가 언제나 찾아가서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p> <p>4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악하고 강포한 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p> <p>5 이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 여호와 주님, 어릴 적부터 내가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p> <p>6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는 언제나 찬송합니다.</p> <p>7 많은 사람에게 나는 표적같이 되었으나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p> <p>8 나의 입은 주님을 찬송함으로 가득하고, 온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p> <p>9 노년(老年)의 때에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 힘이 다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p> <p>10 이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기 때문입 니다.</p> <p>11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를 구해 줄 자가 없으니 뒤쫓아서 잡아라" 하오니,</p> <p>12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p> <p>13 나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사라지게 하 시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조롱과 치욕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십시오.</p> <p>14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주님만 소망하고 그 많은 찬송에 찬송을 더하겠습니다.</p> <p>15 나의 입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말하니, 참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p> <p>16 나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들어와서, 주님, 여호와 주님,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p> <p>17 하나님, 어릴 적부터 나를 가르치셨으니 오늘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p> <p>18 하나님,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팔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p> <p>19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p> |

| | |
|--|--|
| <p>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 내 혀도 종일도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p> | <p>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20 우리로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속 깊은 물에서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21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22 나는 수금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비파를 타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 23 주님께 노래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하리니 주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도 그러합니다. 24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읊조리니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p> |
|--|--|

70편은 다섯 절로 구성된 짧은 시편이지만 71편은 24절이나 되는 긴 시편입니다. 분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다루는 주제나 사용하는 어휘는 매우 비슷합니다. 두 시편에서 모두 원수가 시인을 노리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악인들이 시인에게 입히려고 하는 수치를 악인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인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은 주제를 두 시편에서 나란히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70편은 다섯 절로 짧고 강렬하게 기도하지만, 71편에서는 모태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펼쳐 놓고서 ‘탄식과 찬송’을 알려줍니다.

71편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다가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6절에서는 모태에서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말하고, 5절과 17절에서는 어린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실을 고백하며, 9절과 18절에서는 노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르치심에 바르게 받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평온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고 이 시편을 읽지만, 이 시편에는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열매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인은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언제나’라는 말도 여러 번 사용하면 서(3, 6, 14절)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를 포괄하신 이 시편에는 간구와 찬송이 세 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간구(1-5절)와 찬양(6-8절), 간구(9-13절)와 찬양(14-17절), 간구(18절)와 찬양(19-24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찬찬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구가 짧고(18절) 찬송이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19-24절). 그리고 이 구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간구에서 찬송으로 바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간구를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데에도 곧바로 찬송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전환되는지를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와 찬송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이 시편에는 몇 가지 단어가 후렴구처럼 등장합니다. ‘수치와 모욕’이라는 단어가 1, 13, 24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수치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1절), 대신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13절).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시인을 수치스럽게 하려던 원수는 수치스럽게 됩니다(24절). 대반전이 일어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인은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면서 간구합니다 (2, 15, 16, 19, 24). 1-2절을 보면 원수가 수치를 입히려고 할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고, 23-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원수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고 찬송합니다.

1. 현재의 어려움과 모태에서부터의 신앙과 찬송 (1-8절)

1) 간구 (1-5절)

- 1 여호와 주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2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구해 주시며,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 3 내가 언제나 찾아가서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피합니다.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냥 한 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애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시인을 이 땅에서 제거하여 영원한 수치 가운데 던지려고 다가오고 있다면 매우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때 시인은 열린 “여호와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피합니다.

시인은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의’는 ‘언약을 지키는 의’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의로움으로 생각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15절을 보면, “나의 입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말하니” 하면서 ‘의’와 ‘구원’을 붙여서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3절) 하는 주님의 말을 시인은 마음에 간직하고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향한 주님의 구원도 확신하고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언제나 찾아가서 피할 바위’ ‘나의 반석과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언제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것은 잠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서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1-3절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피할 반석, 반석과 요새로 삼고 피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면서 피할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일을 자주 겪기 때문에 1-3절과 같은 내용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피할 바위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 4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악하고 강포한 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 5 이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 여호와 주님,
어릴 적부터 내가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악인의 공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악인의 손’과 ‘악하고 강포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악인이 자기를 덮치고 이제 해악을 입히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시인은 자기와 주님의 관계를 들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은 어릴 때부터 시인의 소망이고 시인이 신뢰한 분이기에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지금의 위기도 풀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과거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시인의 소망과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 주님이시므로 이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갑자기 찬송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2) 찬양 (6-8절)

6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는 언제나 찬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소망이고 의지할 자라고 고백한 시인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태아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려면 유능한 산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능한 산파에게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붙들어서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편 22:9-10에서 시인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하고 노래한 장면이 생각납니다(참조 시 139:13-17).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다고 말한 뒤에 “주님을 나는 언제나 찬송합니다”는 하는 말이 곧바로 나옵니다. 이 장면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는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말도 배우지 못한 그 순간에 드린 찬송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찬송으로 이해하고서 주님께 계속하여 찬송하였습니다. 큰 고통을 지나고 새로운 세계에 던져진 아이의 울음이 시인에게서는 찬송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도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인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큰 확신을 줍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께서 계속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7 많은 사람에게 나는 표적같이 되었으나
주님께서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8 나의 입은 주님을 찬송함으로 가득하고,
온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인이 많은 사람에게는 ‘표적’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수는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11절). 그러나 시인은 그 고난을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20절).

많은 사람에게 표적이 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온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인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호소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주목거리가 되고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생명이 있으나 찬송하지 못할 때에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의 땅에 가면 찬송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셋째 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 노년의 어려움과 주님의 의를 찬송함 (9-17절)

1) 간구 (9-13절)

- 9 ~~노년~~(老年)의 때에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 힘이 다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10 이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 11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를 구해 줄 자가 없으니 뒤쫓아서 잡아라" 하오니,
- 12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 13 나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조롱과 치욕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십시오.

9-17절은 둘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간구’와 ‘찬송’이 반복됩니다. 시인은 노년의 때에 자기를 내치지 마시고 힘이 다할 때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힘이 약해지는데 그럴 때에 원수가 공격하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시인은 노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는 말은 원수들이 공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음모에 속합니다. 원수들은 거짓 선전을 하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 시인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참조 시편 3:2). 원수가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크게 낙담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원수의 말이 사실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시인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러한 말을 듣고 좌절하면 원수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도와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참고 70:1, 5).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그것은 원수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큰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서 사람을 선동하였는데 그 시도가 실패하여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는 ‘수치심’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에게 해를 입힐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시인은 그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날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구하였

습니다. 원수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원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셨다는 표가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을 더 갈망하면서 원수에게 수치를 내려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은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 찬양 (14-17절)

- 14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주님만 소망하고
그 많은 찬송에 찬송을 더하였습니다.
15 나의 입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말하니,
참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16 나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들어와서,
주님, 여호와 주님,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였습니다.
17 하나님, 어릴 적부터 나를 가르치셨으니
오늘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인은 언제나 주님만을 소망하고 많은 찬송에 찬송을 더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말을 듣고서 낙담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제나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위험이 언제나 있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께 피하면서 계속하여 많은 찬송에 찬송을 더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자기의 힘으로 막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궤에 관하여만 말할 것이지만, 시인은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고,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시인이 노래한 찬송의 주제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찬송으로 그 사실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설명하기보다는 찬송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찬송할 뿐입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찬송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매우 낮게 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일을 우리는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뿐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기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131편의 시인처럼 그는 크고 기이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의 의로우신 구원을 찬송합니다. 노인인데도 힘을 잃지 않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주님을 찬송하였고 노년에 이른 지금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주님의 ‘기이한 일,’ 곧 ‘구원’을 맛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큰 힘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면서 힘을 더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 노년의 힘과 생명은 찬송 (18-24절)

1) 간구 (18절)

18 하나님,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팔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시인은 ‘간구-찬송’을 두 번 반복하였는데, 18절에서 다시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구가 19-24절에서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간구가 짧아지고 찬송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8절에서도 노년이 되어 힘이 빠진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하였는데, 18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호소합니다. 그는 자기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팔의 능력” “주님의 크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주님의 팔의 능력으로 자기의 팔에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 회복되는 것보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팔의 능력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서 젊은 세대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겠다고 하는 시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자기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참조. 시 22:30-31).

시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자기를 높은 위치에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짧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 찬양 (18-24절)

19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20 우리로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속 깊은 물에서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21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팔의 능력을 후대에 전할 때까지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한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팔의 능력을 생각하는 시인은 주님의 의로움이 하늘까지 이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나타난 의로움은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행하신 큰일에서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하늘까지 미치게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면서 높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복음을 후대에 전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는 찬송은 시인이 스스로 지어낸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면서 찬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출 15:11)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신 큰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는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손에만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 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보고서 모세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하고 찬송을 드렸는데, 예언자 미가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인애하심을 보여 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까지 이른 것을 찬송한 시인은 그 찬송의 맥락에서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소망을 아뢰입니다. 20-21절에서는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고 땅속 깊은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고 있는 현실을 담담히 진술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곤경을 겪었으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들어 올리시고 더 크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보내시고 땅속 깊은 물에 떨어뜨리신 것은, 위로해 주시고 하늘 높이까지 오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22 나는 수금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비파를 타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
23 주님께 노래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하리니
주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도 그러합니다.
24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읊조리니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소망을 발견한 시인은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종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시인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입술과 영혼도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보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지령 이와 같은 야곱을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사 41:14-16). 거룩한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시인은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높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원수가 당하는 수치’라는 이 시의 주제가 나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함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부끄러움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71편을 보면, 1절에서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는데, 맨 마지막 절인 24절에서는 원수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마칩니다. 원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시인이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을 구원해 주시면 원수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시인이 얻은 구원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원수가 당하는 수치도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4. 모태에서 무덤까지 찬송함

1) 노년에 힘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시편

71편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된 사람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을 부를 때에 강조점은 노년에 있습니다. 시인은 노년에 힘이 다하여 갈 때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9, 19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육체적 건강이 쇠약해질 뿐 아니라 기억력도 감퇴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다윗을 선대한 바실래가 다윗에게 했던 말은 노인의 심정을 잘 표현합니다. “내 나이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삼하 19:35. 참조. 전 12:1-7).

이러한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실래처럼 마지막 단계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오해’하여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해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봅니다. ‘노욕’(老慾)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면서 노년에 이른 시인은 자기의 약해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9절과 18절에서 똑같이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원수들은 노쇠해지는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를 구해 줄 자가 없으니 뒤쫓아서 잡아라”(11절) 하고 말하지만, 시인은 자기를 다시 강하게 하여서 그 원수들에 맞서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팔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18절). 18절의 기도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늙은 시인이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팔의 능력을 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노인 신자는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젊은이는 힘이 있고 노인은 힘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팔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고후 12:9).

2)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 부르는 시편

‘버림을 받는 것’은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노년의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시인을 버렸으므로 그를 뒤쫓아서 잡자고 말합니다(11절). 원수의 주장대로 시인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 매우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혹시라도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시편 71편 앞부분은 31편 앞부분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피할 바위와 반석과 요새로 삼고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려울 때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께 피합니다. 31:5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피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도 주님께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71:20의 ‘땅속 깊은 물에서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표현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원수들이 자기들의 꾀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22:1) 하는 시인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 문자적으로 적용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눅 23:35-37).

그런데 땅속 깊은 물에서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구절도 예수님께 문자적으로 적용됩니다.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인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일어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사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이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의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을 봅니다.

3)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는 시편

노년이 되어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이나, 원수의 주장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어두운 시기를 지내는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서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원수의 주장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시기를 지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어려운 때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힘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이 시편과 함께 우리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시편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힘이 사라지는 노년의 때에 71편을 부르면서 교회의 젊은이에게도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이 시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이 시편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시편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이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활력이 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살았던 시인이 백발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9절과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긴 열매가 있으나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피하였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나 주

님께 피하였습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150:6)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이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수치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1편으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영광과 수치를 두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서 힘이 없어진 사람뿐 아니라 젊어서 앞길이 창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능력은 여호와께 있으므로 자기의 손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손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젊다고 하지만 다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경책하시면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9년 2월 1일)